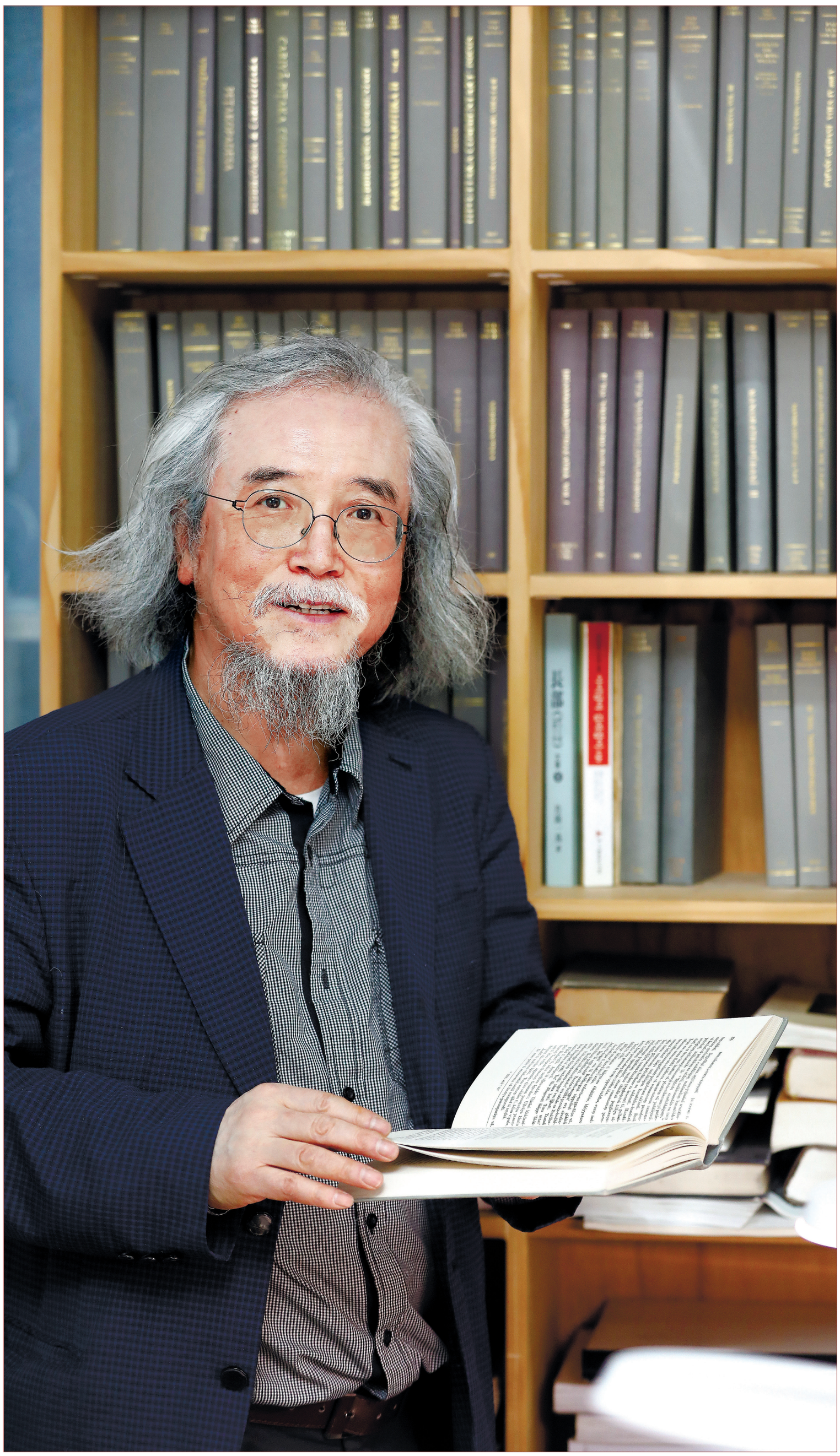
초기불교 한글 역경 견인 '21세기 구마라집'



테마人 **전재성(66)**
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

글=신성민 기자, 사진= 박재완 기자

불교가 시작된 곳은 현재의 인도다.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펼치신 가르침이 동진(東進)해 중국을 거쳐 한국과 일본까지 전해졌다. 수많은 시간과 지역을 거쳐 불교가 전해지기까지는 경전이라는 매개체가 있기에 가능했다. 이런 불교 경전의 전파는 여러 루트가 있었겠지만, '역경(譯經)'이 함께 해서 이뤄질 수 있었다.

불교 역사를 살펴보면 뛰어난 역경사(譯經師)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구마라집은 경전 35종 294권을 번역했고, 인도에서 유학했던 현장은 74부 1,335권의 경전을 한역(漢譯)했다.

한국불교에서도 삼국시대에는 원측, 승장 등이 역경사로서 역할을 했고, 조선시대 훈민 창제가 이뤄지면서 우리말을 통한 역경이 이뤄졌다. 근현대기에도 한역 경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이 용성 · 운허 스님 등을 통해 진행됐다.

21세기를 넘어오면서 한국불교는 다른 변화를 맞이한다. 초기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기불교 경전이 우리말로 역경 · 발간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대중서점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말 초기불교 경전은 한 사람의 원력에서 비롯됐다. 바로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66)이다.

초기불교 대중화를 견인하다

기실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불교에서 초기불교의 흔적은 흐릿했다. 동국역경원이 초기불교 경전에 해당하는 한역 〈아함경〉을 한글로 역경했지만 애초 한역 과정의 변형이 있었고 이를 감안해 역경할 학계 역량도 부족했다.

그런 이유로 초기불교는 '소승'이라는 타이틀에 묻혀 한국불교 안에서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다. 이 같은 흐름은 전재성 회장의 역경 불사가 바꿔 놓았다. 1989년 시작된 그의 역경불사는 현대 한국불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전재성 회장은 1999년 총11권의 〈쌍윳따니까야〉 완역을 시작으로 〈맛지마니까야〉 〈앙굿따라니까야〉 〈디가니까야〉 등 4부 니까야 전체를 우리말로 옮겼다. 또 〈법구경〉 〈우다나〉 〈숫타니파타〉 〈이띠붓따까〉 〈율장대품〉 〈율장소품〉 〈율장 비구계〉 〈율장 비구니계〉 등 역경 결과물들을 세상에 내놨다.

또한 그가 편찬한 〈빠알리어 사전〉과 〈티베트어 사전〉은 한국에서 최초로 발간된 빠알리어와 티베트어 사전이다.

올해에도 11월에는 〈청정도론〉을, 7월에는 〈앙굿따라니까야 전서〉를 발간하며 역경 불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역경의 결과물은 모두 전재성 회장의 노력에서 비롯된다. 역경 불사를 시작한지 30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그는 아침 5시에 기상해 사무실로 출근한 후 평균 6시간 정도 역경에 매진한다. 하지만, 번역량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고 했다.

"하루 번역량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정신이 맑아지면 많은 양을 번역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가 그냥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통은 다른 일보다는 경전 번역하는 과정이 저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탐구하는 일이고 거기서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번역에 매진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전재성 회장의 부지런함은 그간의 역경서의 원고 분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에 따르면 200자 원고지 분량으로 〈쌍윳따니까야〉는 3만 4000매, 〈앙굿따라니까야〉는 2만 6,000매, 〈맛지마니까야〉는 1만 3,000매, 〈디가니까야〉는 1만 1,000매, 〈쿳다까니까야〉는 3만 1,000매, 〈빠알리어사전〉은 1만 7,000매에 달한다.

그간의 저작물들을 모두 합치면 총 13만매 가량의 원고를 썼다. 일반교양서가 200자 원고지 1,000매 정도임을 감안하면 약 130권 가량의 분량이다.

이 같은 전재성 회장의 역경이 갖는 의미는 대부분의 역경물이 '복원번역'을 통해 이뤄진 점이다.

"대부분 빠알리본 자체가 정형구의 생략본이기 때문에, 현행 영문번역본도 대부분 생략본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상용화된 이후에는 빠알리본도 복원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한 것은 대부분 복원번역한 것입니다. 따라서 복원번역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원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불교에서의 법률체계를 다루고 있는 율장의 완전복원입니다. 율장은 계율변수가 워낙 많아 완전복원은 불가능하고 대체적으로 '완전복원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율장의 마지막 한권인 율장부수를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그 방대함과 논리적 정교함 때문에 완전복원 자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해석학적 원칙에 입각한 생략본을 부분적으로 해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불교 경전 한글화의 효시
1989년부터 30년간 역경 매진
4부 니까야 · 율장 등 완역 성과
세계 최대 어휘 빠알리어 사전
한국 최초 티베트어 사전 편찬
초기불교 대중적 관심 이끌어

역경 작업은 '성실 · 정확'이 생명
매일 평균 6시간씩 역경에 몰두
현재 역경 · 사전원고 13만매 분량
세계 번역물 섭렵 · 대조 역경 노력
번역 일관성 · 문맥 적용성도 유의
"역경, 자기 마음 탐구하는 작업"

역경서 중요한 것은 '성실성'

이내 역경 작업에서 가장 유의하고 있는 점이 궁금해졌다. 전재성 회장은 번역의 일관성과 문맥상 적용성이라고 했다.

"번역의 일관성과 문맥상 적용, 두 가지가 항상 번역과정에서 충돌합니다. 여기서 적절한 중립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담마 또는 다르마는 한역에서는 '법'이라는 일관성을 가지고 번역하지만, 그렇게 되면 문장이 너무 형이상학화되고 난해해집니다. 문맥상으로 적용성을 가지고 때로는 '진리' 때로는 '원리' 때로는 '사실' 때로는 단순히 '것'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또한 성실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실제 그는 경전 번역에 있어서 전 세계 역경의 결과물들을 참조한다.

"초기 경전을 역경할 때에는 빠알리 원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번역본들을 함께 참조합니다. 한 가지 번역본을 우리말로 옮기면 오류가 많을 수 밖에 없죠. 한역 경전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 백화문이나 일본 번역도 연구하고 티베트어, 산스크리트어본을 함께 봐야 제대로 된 역경이 이뤄집니다. 바른 번역은 성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B2면에 계속

전재성 회장는… 1953년 출생. 서울대를 졸업했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13년차 회장을 역임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석 ·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독일 본대학에서 인도학, 티베트학을 연구했다. 독일 본대학과 쾰른 동아시아 박물관 강사, 동국대 강사, 중앙승가대 교수, 경전연구소 상임연구원, 한국불교대학(스리랑카 빠알리불교대학 분교) 교수, 충남대 강사, 가산불교문화원 객원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한국빠알리성전협회 대표를 맡고 있다. 1999년 총11권의 〈쌍윳따니까야〉 완역을 시작으로 〈맛지마니까야〉 · 〈앙굿따라니까야〉 · 〈디가니까야〉 등 4부 니까야 전체를 우리말로 옮겼다. 또한 〈법구경〉 · 〈우다나〉 · 〈숫타니파타〉 · 〈이띠붓따까〉 · 〈율장대품〉 · 〈율장소품〉 · 〈율장 비구계〉 · 〈율장비구니계〉 등 역경 결과물들을 세상에 내놨으며, 〈빠알리어 사전〉 · 〈티베트어 사전〉을 한국 최초로 편찬하기도 했다.

INSIDE

B3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만행과 운수 행각

B5 문화
영화 '선종 무문관' 개봉

B6 학술
랭카스터 교수 '대고려 전' 특별 강연